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철학은 회의와 반성 속에서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과정을 통해 전개되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의심 자체를 수행하는 ‘나’는 결코 부정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사유하는 주체’는 모든 인식 체계의 기초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주체 개념은 주체를 능동적 중심으로, 세계를 그 앞에 놓인 수동적 대상의 총체로 환원하였다. 대상은 더 이상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가 파악하고 구성하는 표상에 불과해진 다.

칸트는 이러한 전통을 변형시켰다. 그는 인간 인식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 형식을 통해 경험 자료를 구조화한다고 보았다. 시간과 공간은 감성의 형식이며, 인과성·범주 등은 지성의 형식이다. 주체는 이러한 형식을 통해 경험 세계를 현상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동시에 칸트는 ‘물자체’를 설정하여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식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주체는 현상을 통해 세계를 구성하지만, 그 너머의 실재는 영원히 은폐된 채로 남는다.

후설은 주체와 세계를 분리하는 이러한 전통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는 의식이 언제나 어떤 대상을 향한다는 ‘지향성’을 강조하였다. 주체는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의식 흐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주체와 세계의 상호 연관성이 드러나지만, 후설은 이를 보편 구조의 ‘본질 직관’으로 환원하려 하면서 구체적 맥락의 풍부함을 제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이데거는 이를 더욱 철저히 비판하며, 인간을 ‘세계-내-존재’로 규정하였다. 인간은 세계와의 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유한성과 시간성 속에서만 의미를 얻는다. 주체는 더 이상 자족적 기초가 아니라, 이미 세계와 얽혀 있는 존재로 재규정된다.

이러한 흐름은 주체의 자율성을 해체하는 전환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단순히 외적 구조에 휘둘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존재를 형성하는 능동적 존재임도 드러났다. 주체는 확실성의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규정되는 역사적·맥락적 존재로 전환된 것이다.

(나)

20세기 사상은 주체 해체를 더욱 급진적으로 전개하였다. 소쉬르는 언어가 대상을 자연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들 간의 차이와 관계 속에서 의미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의자’라는 단어가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책상’, ‘침대’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즉 언어는 사물에 붙는 이름표가 아니라, 체계적 차이 속에서 작동하는 의미망이다. 주체는 언어 체계의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사물을 규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언어적 구조 안에 포섭되어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통찰을 이어받아 언어 규칙과 관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게임’, ‘지식’, ‘정의’ 같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특정한 생활양식 속에서 공유되는 규칙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의미는 고정된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쓰이는 ‘언어 게임’ 속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주체는 언어 체계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세계를 파악할 수 없으며, 언어 규칙과 관습에 의해 경험 세계를 해석하게 된다.

푸코는 이러한 관점을 더욱 정치화했다. 그는 언어와 지식이 단순한 의미 전달 수단이 아니라 권력과 결부된 ‘담론’이라고 보았다. 병원, 감옥, 학교와 같은 제도들은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거나 중립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인간을 규율하고 주체를 형성한다. 이를테면 정신의학 담론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배치하며, 그 속에서 주체는 스스로를 ‘정상적 개인’ 혹은 ‘환자’로 인식한다. 즉 주체는 제도와 담론의 산물이며, 자율적 기초가 아니라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결과다.

이러한 흐름은 주체를 탈중심화하고, 언어·담론·권력 구조를 중심에 위치시켰다. 그러나 이는 주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주체는 스스로 자율적이라고 믿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적·언어적·권력적 구조의 효과를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주체란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관계와 규칙, 담론과 권력의 장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불안정한 자리일 뿐이다.

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카르트는 주체를 절대적 기초로 보았으나,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와 분리된 독립적 자아로 규정하였다.
 - ② 칸트는 인간 인식이 선험적 형식에 의해 구성됨을 강조하여, 주체의 능동성을 밝히는 동시에 인식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 ③ 후설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주체와 세계가 본래적으로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 ④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내-존재로 파악하며, 주체를 시간성과 역사성 속에서 규정하였다.
 - ⑤ (가) 전체의 전개는 ‘주체의 자율성 강조 → 주체의 한계 지적 → 의식의 지향성 강조 → 주체의 역사성·세계성 강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5.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쉬르는 의미가 고정된 대상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기호 체계와 무관하게 주체가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비트겐슈타인은 의미가 언어 사용 맥락에서만 성립한다고 하여, 주체의 해석이 생활양식과 규칙에 의해 제약됨을 강조하였다.
 - ③ 푸코는 담론을 의미의 중립적 전달 과정으로 보아, 주체는 권력 관계와 무관하게 담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나) 전체의 논지는 언어·담론 구조가 주체를 규율하기보다는, 주체의 내적 자유가 언어 사용을 규정한다는 점에 있다.
 - ⑤ (나)에 제시된 논의들은 모두 언어 체계가 권력 관계와는 무관하게 자율적 의미 생산 과정을 이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